

임신 중 가벼운 음주도 태아 중추신경계 악영향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중추신경계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태아의 초음파검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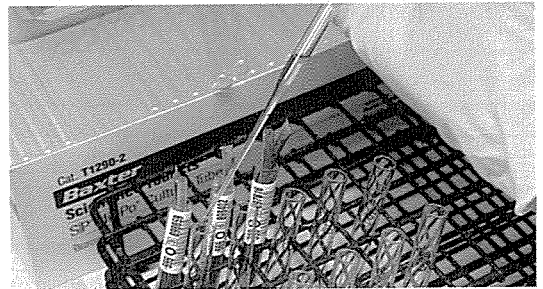
영국 벨파스트 대학의 피터 헤퍼 박사는 임신 중 매주 1잔에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실 경우, 태아의 반사행동인 놀람반사가 중추신경계가 완성되는 임신 18주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인터넷 판이 어제 보도했다.

헤퍼 박사는 임신 18주 동안에도 음주 그룹의 태아는 비음주 그룹의 태아에 비해 놀람반사 빈도가 3.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뇌 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임신 중 가벼운 음주도 태아의 중추신경계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헤퍼 박사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5. 11. 22

간단한 피검사로 유방암 조기진단



유방암을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강남성모병원 유방센터 정상설 교수와 산부인과 김진우 교수팀은 기존 유방암 검사에 비해 진단효율이 4배 이상 높은 브레첵(BreaCheck)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명 학술지인 '임상 암 학회지(Clinical Cancer Research)' 인터넷판에 최근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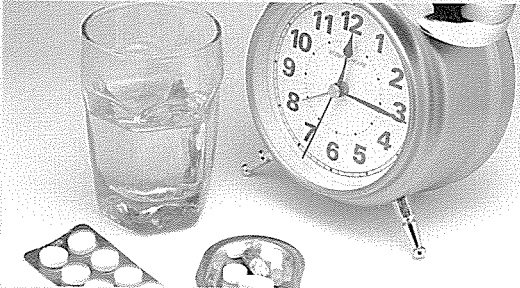
현재 유방암에 대한 혈액검사는 혈액 속에 종양표지자인 'CA15-3'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 검사법은 진단율이 20% 정도에 불과해 확실한 진단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정상설 교수팀이 개발한 유방암 진단시약인 브레첵의 진단 방법은 환자에게서 극소량의 혈액을 채취한 후 체외에서 효소 면역 측정법을 이용해 유방암 유발 단백질인 HCCR 수치를 측정한다.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129명의 유방암 환자와 24명의 양성 유방 종양환자, 158명의 정상인에서 유방암 유발 단백질과 종양표지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기 유방암에서 83.3%의 양성 반응을 보여 유방암 조기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세계일보 2005. 11. 22

4대암 검진비 20%만 낸다



내년부터 암 검진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4대 암의 검진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은 병·의원에서 검진 받을 때 2만420원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8,17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인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05. 11. 22

카레 주성분 「강황」 위장 보호 효과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姜黃)이 위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김경태 교수와 김 교수 연구실이 설립한 벤처기업 (주)뉴로넥스(대표 김동찬) 연구팀은 강황 추출물이 위산 분비를 효과적으로 조절,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국제약리학회지'(BPB : Biological & Pharmaceutical Bulletin) 12월호에 게재된다고 대학측이 밝혔다.

연구팀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에서 이를 분해하기 위하여 위산이 분비되는데 이때 위산이 주변의 위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위점액도 같이 분비된다"면서 "그러나 과식, 스트레스 등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돼 적절한 균형이 깨질 경우 위궤양, 위암 등 위 질환이 유발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강황 성분 중 에탄올과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을 이용, 이 성분이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히스타민(Histamine) 2 수용체'를 억제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천연물질 성분에 의한 히스타민 2 수용체와 세포신호전달물질(CAMP) 생성 단백질인산화효소 A (Protein Kinase A) 활성화 소화를 위한 위산의 위장관 내부 분비'로 이어지는 위산 분비조절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돼 부작용이 없는 위장 관련 천연 신약 개발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姜黃)은 '생강'과의 한해살이 풀로 '울금'이라고도 하며 아시아가 원산지로서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된다. ☺

연합뉴스 2005. 11. 23